

내 친구 씨름 왕자



★ 핵심 주제

- 학교생활
- 학교 폭력
- 우정

★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5-6학년군	
성취 기준	<p>[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p> <p>[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p> <p>[6국03-05]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p> <p>[6국04-04]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p> <p>[6국04-06]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쓰는 태도를 지닌다.</p> <p>[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p> <p>[6실01-03] 주변 가족의 모습을 통해 나와 가족의 관계 및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공통점을 파악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한다.</p> <p>[6체01-03]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부족했던 체력의 향상을 체험함으로써 타인과 다른 자신의 신체적 기량과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p> <p>[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p> <p>[6미02-03]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p>

★ 온 책 읽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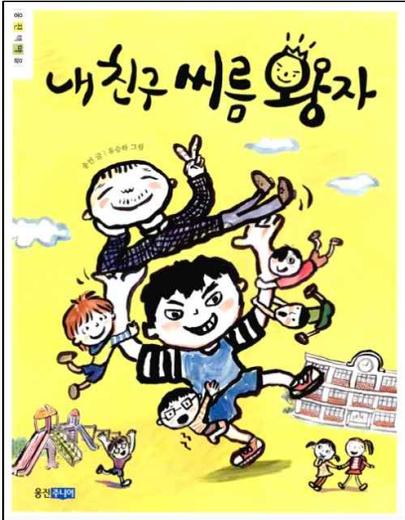
🌱 읽기 전	🌿 읽기 중		🍊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표지 살펴보기	1. 편지	• 새로운 속담 만들기	• 표정과 색으로 기분 표현하기 • 바른말 고운 말 • 인터뷰하기
	2. 탐색	• 다양한 가족의 모습	
	3. 신발 / 백팔 배 / 발아구	• 성격 알아보기	
	4. 허수아비	• 행복한 학교생활	
	5. 원두막	• 만화 만들기	
	6. 씨름 왕자	• 씨름의 기술	

표지 살펴보기

학년 반 번

이름

★ 이 책의 표지를 살펴본 다음, 다음 질문에 답을 써 봅시다.



(1)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씨름 왕자'는 누구인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생각하는 '씨름 왕자'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읽기 중 활동	1. 편지	학년 반 번	
	새로운 속담 만들기	이름	

★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를 무언가에 빗대어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에요. 글을 읽고, 밑줄 친 속담이 무슨 뜻인지 써 봅시다.

강도훈이 등을 돌리고 막 걸음을 떼려 했을 때, 털보 선생님이 다시 불러 세웠다.
 “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느냐?”
 “왜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있어요. 이휘성요.”
 강도훈은 교실 밖으로 휙 사라졌다.
 털보 선생님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명하니 서 있었다.

 이 속담의 뜻을 잘 모르거나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에서 '닭' 을 검색해 보세요. 예문에 나온 속담과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요.

★ 닭, 또는 개가 나오는 속담을 써 보고 뜻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써 봅시다.

'닭'이 나오는 속담		'개'가 나오는 속담	
속담	뜻	속담	뜻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서로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사이를 이르는 말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꾸짖는 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 놓고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일이 잘 안 된다는 것.	개가 똥을 마다한다.	좋아하는 것을 아닌 척하며 싫다고 거절할 때 비꼬는 말.
예) 닭 잡아먹고 오리 발 내놓기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행동이나 말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	개가 웃을 일	너무 어이없는 일.

★ 속담은 오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보기>처럼 전해오는 속담을 현재에 맞도록 새롭게 바꾸고, 그 이유도 써 봅시다.

속담	새로운 속담	바꾼 이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암탉이 울면 아침이 온다.	지금은 남녀 차별이 심한 옛날과 다르다.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아는 것이 병	예) 아는 것이 힘	예) 오늘날은 정보량이 넘치고, 기술 발전도 엄청 빠르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힘이 되어 살기 편하고 나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읽기 중 활동	2. 탐색	학년 반 번	
	다양한 가족의 모습	이름	

★ 글을 읽고, 알맞은 답을 찾아봅시다.

“엄마보다 친구랑 상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야, 그런 건 아빠랑 상의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내가 답하는 순간, 강도훈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강도훈이 침을 뱉듯 말을 툭 내뱉었다.
 “아빠가 있어야 상의를 하지…….”
 ㉠순간 나는 당황했다. 그래서인지 바보 같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왜 아빠가 없어?”
 강도훈이 후유 한숨을 토했다.
 “휘성아,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엄마가 이혼을 했으니까 아빠가 없는 거지.”
 “아, 그렇구나. 미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난 아빠가 없는 우리 집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아서, 네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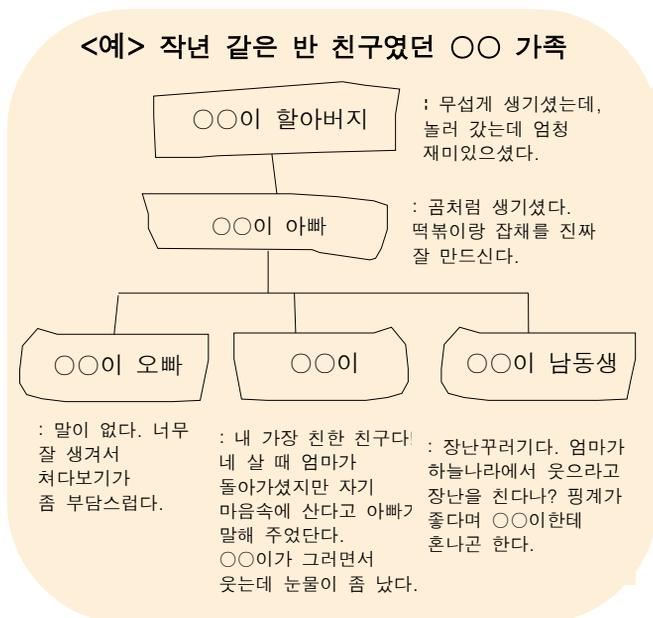
(1) ㉠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맞은 번호를 써 봅시다. (㉡)

- ① 강도훈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 ② 강도훈에게 아빠가 없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 ③ 강도훈이 말을 걸었기 때문에
- ④ 강도훈과 단둘이 있는 게 싫어서

(2) ㉡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강도훈의 가족 형태를 찾아 번호를 써 봅시다. (㉢)

- ① 새엄마, 아빠, 강도훈이 함께 사는 재혼가족
- ② 엄마, 아빠, 강도훈이 사는 핵가족
- ③ 엄마와 강도훈이 사는 이혼가족 ④ 할머니, 할아버지, 강도훈이 사는 조부모가족
- ⑤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족

★ <예시>처럼 내 주변의 가족들 중 한 가족의 가계도를 그려 봅시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간단히 써 봅시다.



네 가계도

 읽기 중 활동	4. 허수아비	학년 반 번
	행복한 학교생활	이름

★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써 봅시다.

강도훈이 다짜고짜 발길질을 했다. 박한결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다. 김찬우가 주저앉은 곳 바로 옆이었다.

바로 그때, 씨름 감독님이 운동장 끝에서 강도훈을 보고, 강도훈을 불렀다.

강도훈이 부리나케 달려가자 그제야 우리들은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 터벅터벅 교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입을 꼭 다물었다. 어쩌면 ㉡우리들은 강도훈의 폭력에 야금야금 길들여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1) ㉠처럼 내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또는 다른 아이가 그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한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그랬나요?

(2) ㉡처럼 ‘폭력에 길들여진다’가 뜻하는 것을 모두 찾아 번호를 써 봅시다. (①, ④)

- ①자꾸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는 것.
- ②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를 좋아하게 되는 것.
- ③폭력에 익숙해지지 않고, 때때로 내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 .
- ④공포, 패배감, 무력감이 생겨서 그 상황을 바꿔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나의 다짐을 써 봅시다.

😊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나의 다짐 😊

1. 나 _____ (은)는 학교 친구들을 때리지 않는다!

2. 나 _____ (은)는 학교 친구들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지 않고, 고운 말 바른말을 쓴다.

3. 나 _____ (은)는 다른 아이에게 나 또는 다른 친구가 맞거나 왕따를 당하면

예바로 어른에게 알린다

5. 나 _____ (은)는 _____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도와준다.

6. 나 _____ (은) 만약 내가 잘못을 하면 다른 친구에게 떠넘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한다.

읽기 중 활동

5. 원두막
만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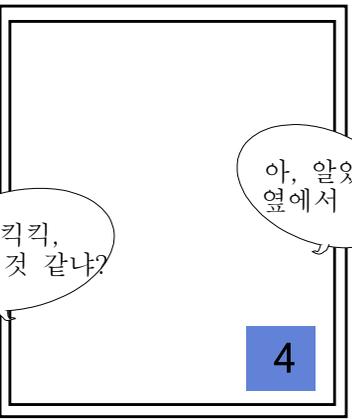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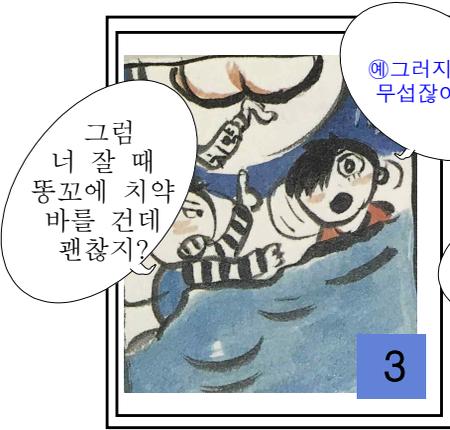
학년 반 번
이름

★ 만화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봅시다. 그리고 나라면 나쁜 말을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고, 만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그려 봅시다.

💡 힘세고 못되게 구는 친구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힘들어요. 평소에 불쾌한 기분과 '싫다'고 거절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④ 너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틀 거야. / 너, 나랑 친해지고 싶니? 그러면 말을 예쁘게 해 줘. / 난 하나도 안 무서워...



4 다시 쓰기

★ 친구와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을 위처럼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Blank comic panels with speech bubbles for drawing and writing.

 읽기 중 활동	6. 씨름 왕자	학년 반 번
	씨름의 기술	이름

★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허리와 다리에 둘러 묶은 살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우리나라 전통 운동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에 알맞은 씨름 기술의 이름을 찾아 빈칸에 써 봅시다.

<보기>	뒤집기 기술 안다리 걸기 들배지기	
	뿌리치기 기술 바깥다리 걸기	
<p>강도훈은 오뚝이처럼 되살아나 잽싸게 오른쪽 발목으로 상대 선수의 다리 안쪽을 휘감았다. “이 기술은 상대 선수를 앞으로 끌어 당겨 붙여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상대의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 붙인 다음, 밀어 넘어뜨리는 거야.”</p> <p>㉠ <u>안다리 걸기</u></p>	<p>“키가 큰 선수가 자기보다 작은 선수를 상대할 때 노리는 기술이야.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걸어 넘기는 기술을 이용하는 거지.”</p> <p>㉡ <u>바깥다리 걸기</u></p>	<p>“덩치 큰 선수가 자기보다 작은 선수를 상대할 때 주로 쓰는 기술이야. 상대방의 살바를 잡고 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자기의 몸을 살짝 돌리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야.”</p> <p>㉢ <u>들배지기</u></p>
<p>강도훈은 상대 선수의 몸뚱이를 오른쪽으로 휩 몰아붙였다. 그러자 상대 선수가 몸의 중심을 왼쪽으로 가져가며 버텼다. 그 순간에, 강도훈은 번개처럼 상대 선수를 왼쪽으로 뿌리쳤다.</p> <p>㉣ <u>뿌리치기 기술</u></p>		<p>키가 큰 상대 선수의 밑에 깔려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강도훈은 힘차게 허리를 펴며 온몸을 뒤로 뒤집었다. 그러자 상대 선수가 물레방아처럼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철퍼덕 나가떨어지는 것이었다.</p> <p>㉤ <u>뒤집기 기술</u></p>

★ 다른 씨름의 기술을 더 찾아보고, 어떤 기술인지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또 유튜브 무료 씨름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씨름 기술 사진들을 보고, 실제로 따라 해 봅시다.

기술 이름	내용
밀어치기	위에서 상대 선수를 찍어 누르면서 밀어붙이는 기술
㉥ <u>앞무릎 치기</u>	오른손으로 앞으로 나온 상대 선수의 오른쪽 무릎을 치면서 상대 선수의 윗몸을 오른쪽으로 들어 넘어뜨리는 기술
㉦ <u>잡치기</u>	상대 선수를 들려고 하면 상대 선수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밀으로 중심을 잡는다. 이때 상대 선수의 다리 살바와 허리 살바를 왼쪽으로 당겨 넘기는 기술

 **씨름 놀이를 하거나 씨름 기술을 연습할 때에는 먼저 바닥에 매트 등을 깔아 주세요. 다치지 않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이웃에게 소음 등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합니다.**

읽기 후 활동

표정과 색으로 기분 표현하기

학년 반 번

이름

★ 상황 글을 읽고, 각 등장인물의 얼굴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표정을 그리고 색깔로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그 표정과 색깔을 선택한 이유를 써 봅시다.

상황

표정과 색깔

이유

강도훈이 억지로 장범수에게 진흙탕에 빠진 자기 신발을 꺼내 오게 하고는 그 젖은 신발과 장범수 신발을 바꿔 신은 일.

장범수

축구 경기 중, 강도훈이 팔꿈치로 김찬우 등을 강타했는데 이휘성을 비롯한 반 친구들이 폭행을 당한 찬우 편보다는 폭행을 가한 강도훈의 눈치를 본 일.

김찬우



털보 선생님이 전국 소년 씨름 대회에 출전한 강도훈을 응원하러 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승용차로 데려다 달라는 이휘성의 전화를 받은 일.

털보 선생님



이휘성이 선생님의 예상과 달리 강도훈의 나쁜 점에 물들었지만, 본바탕이 바르기 때문에 금세 체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털보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일.

이휘성



읽기 후 활동

바른말 고운 말

학년 반 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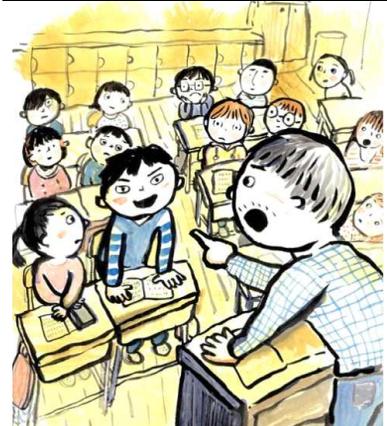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품위가 낮고 속된 말이에요. 비어는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또는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일컫는 말이지요.

★ 글을 읽고, ㉠~㉣에서 속어 또는 비어를 한 개씩 찾아 알맞은 빈칸에 써 봅시다. 그리고 각각 바르고 고운 말로 바꿔 빈칸에 써 봅시다.

㉠강도훈이 벌떡 일어나 사정했다. “반장, 나 한 번만 봐주라.” 김찬우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건 안 돼. 너만 봐줄 수는 없으니까.” 강도훈이 한 번 더 사정했다. “딱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또 떠들면 그때는 주둥아리를 꿰맬게.”

㉡“잘 기억해 뒤라. 백 살 넘은 뒤로는 세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나이는 모른다.” 몇몇 아이들 입에서 탄성과 함께 질문이 쏟아졌다. “우아, 정말이에요?” “설마 진짜 백 살 넘은 건 아니시겠죠?” “함박눈 온다고 뺨치는 거예요?”

㉢강도훈이 낯설어하는 아이들을 대표해서 따졌다.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는 거 전 싫어요. 쪽팔리게 가정 방문을 왜 해요. 가정 방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내면과 외면이 전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고운 말을 쓰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비어		바른말
주둥아리	➔	입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속어		바른말
쪽팔리게	➔	창피하게
뺨치는	➔	허풍 치는
_____	➔	_____
_____	➔	_____

★ <보기>에 따라 내가 비어나 속어를 쓴 경험을 글로 써 봅시다.

<보기>

- 언제 그랬나요?
- 누구에게 그랬나요?
- 어디에서 그랬나요?
- 어떻게 했나요?
- 왜 그랬나요?
-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 앞으로는 그 말 대신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비어의 예: 대가리(머리), 눈깔(눈알), 애미(어머니), 처먹다(먹다)

어의 예: 죽인다(대단하다), 구라(거짓말), 짬밥(숙련도)

 읽기 후 활동

인터뷰하기

학년	반	번
----	---	---

이름	
----	--

★ 씨름 대회가 끝난 다음, 기자가 강도훈을 응원 했던 반 친구들을 인터뷰했어요. 기자의 질문을 읽고, 질문받은 친구가 되어 답을 써 봅시다.

💡 친구와 연극놀이를 해 보세요. 각각 인터뷰하는 기자와 답을 하는 아이가 되어 표정과 말투, 몸짓에 신경 쓰며 실감나게 연기해 보세요.



기자: 강도훈 선수는 이휘성 학생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던데요.

이휘성 학생에게 강도훈 선수는 어떤 친구인가요?

이휘성: 사실 강도훈과는 4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는데요. 5학년 올라가서 같은 반이 된 걸 알았을 땐 솔직히 정신이 휘청했어요. 강도훈이 많이 짓궂었기 때문에 저한테 마음을 담아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는 걸 알면서도 부담스러워, 한사코 피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강도훈은 제가 넘어야 할 산이자 강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가 보려고요.



기자: 강도훈 선수가 반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었다는데, 어떻게 대회장에서 가장 먼저 “할렐루야!” 하며 응원을 시작했나요?

이 할렐루야: **예** 일단 이휘성, 박한결, 장범수랑 원두막에서 넷이 굳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함께 행동하자고요. 그래서 이휘성이 강도훈을 응원하러 가자고 했을 때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같은 반 아이인 강도훈이 다른 선수랑 시합을 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응원을 했으니 강도훈도 앞으로는 우리한테 착하게 굴겠죠? 히히히.



기자: 원래 강도훈 선수를 응원하러 대회장에 올 생각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왜 생각을 바꾸었나요?

박한결: **예** 음, 이제 강도훈도 정신 차렸으니 하는 말인데요. 우리 힘들게 한 그 녀석을

응원까지 하러 가야 하나 약이 올랐었요. 그런데 어렵게 결심하고 막상 대회장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따라 “강도훈, 강도훈!” 응원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전에는 강도훈을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 강도훈이 한 말을 읽고, 강도훈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사과의 쪽지를 써 봅시다.

반 친구들한테 못되게만 굴었는데, 친구들이
응원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약
우리 반 친구들이 응원오지 않았다면,
난 결승전에도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좀 겁났는데 ‘할렐루야’하는 응원 소리를
들은 뒤부터 자신감이 솟구쳤어요.

예) 이휘성, 박한결, 이 할렐루야, 장범수!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많이 괴롭혔지? 그런데도
너희는 멀리 충주까지 응원을 와 주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진짜 기쁘기도 했고, 나 어제 많이
반성했다, 애들아, 정말 어제 고마웠어,
그리고 그동안 진짜 미안했어. 앞으로 잘 할게.